

# “연말 모임 취소하면 상품권 드립니다”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14~18일 이벤트 100명 추첨

군산시가 연말 모임을 취소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안전한 연말 인증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연말 모임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종이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올리면 된다.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간은 14~18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28일에 발표한다.

군산시는 참여자 가운데 총 100명을 추첨해 은누리상품권 1만원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호 군산시 홍보담당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일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면서 “겨울철 대유행을 막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정읍사공원에서 빛의 향연 즐기세요”

야간 조명 설치 불거리 명소 조성

오후 7시~8시 30분 연말 시범운영

정읍사공원이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야경 명소로 거듭났다.

정읍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색다른 문화 콘텐츠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읍사공원 일원에 야간 불거리명소를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천년의 기다림,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를 바탕으로 3가지 이야기 콘셉트가 반영된 조명시설에는 미디어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4차원 실감 콘텐츠가 도입돼 정읍사공원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기존 조형물을 활용한 ‘여인의 꿈’은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간절한 바람을 묘사했으며 망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계단’은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이용해 산길과 물길, 꽃길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했다.

또 망부상의 끝자락에는 ‘홀로그램 극장’을 설치해 소설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 내용 중의 일부인 ‘월아와 도림의 사랑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정읍시는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를 운영시



정읍시가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를 바탕으로 미디어 파사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정읍사공원을 야경명소로 조성했다. <정읍시 제공>

간으로 정해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변의 ‘아양사랑굴’과 ‘아트로드’ 등의 야간경관 시설과 함께 정읍사공원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관광을 선도하는 야간 불거리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 설화를 바탕으로 한 실감 콘텐츠 구현으로 정읍사공원이 빛으로 물든 명소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감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해 정읍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며 널리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군산 비안도 해역 가리비 시험양식 성공 95% 생존...6개월만에 8cm 성장

군산시는 서해안 비안도 해역에서 가리비 시험양식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6월 2mm 크기의 가리비 종묘를 바다에 입식해 6개월 가량 키웠으며, 최근 7~8cm 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리비는 보통 4.5cm 크기 이상이면 판매할 수 있어 이 정도 크기면 상품성이 충분하다. 생존율

도 95% 가량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가리비 양식은 사료를 주지 않고 해수 유통만으로 먹이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이 더욱 높다고 군산시는 설명했다.

시험 양식에 성공한 비안도 해역은 먹이가 풍부하고 수온이 적당해 가리비 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시는 내년에는 비안

도 이외 해역에서 추가로 가리비와 홍합 등을 시험 양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체당 5원인 가리비 종묘를 양식해 위판하면 5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시험 양식 성공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전북도, 고창 운곡습지·부안 채석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고창 운곡습지



부안 채석강

5~8월 유네스코 현장실사

전북도가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의향을 전달한 이후 자체 평가와 환경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거쳐 11월30일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송부하며 신청 절차를 마쳤다.

내년 4월까지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의 국제적 가치 평가와 자체 평가표에 대한 서면심사가 진행되고 5~8월에는 유네스코 관계자 2인의 현장실사가 예정돼 있다.

최종 인증 여부는 2022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인

증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질공원의 주요 생태·지질명소의 가시성 제고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한 외국어 해설판·인쇄물과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의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평가 기준에 따른 역사·문화 등 비지질 자원을 연계한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기반 구축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차질 없이 준비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생태명명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제주도과 경북 청송, 광주 무등산권, 경기·강원 한탄강 등 4개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세계적으로 44개국 161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빛원전 안전 대책 고창군민 의견 수용하라”

고창군의회 결의안 채택

진상 규명·관련자 처벌 촉구

고창군의회가 영광 한빛원전의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음에도 각종 의혹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의회는 “영광 한빛원전의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 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발견,

열 출력 급증, 납품 비리 및 보증서 위조 등 반복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그 위험성을 감당해 왔다”면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있는 안전예방 대책을 고창군민과 함께 수립하고 주민 동의를 통한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또 한빛원전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자 처벌,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조규철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은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한빛원전 재가동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